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4

# 베를린 대학과 호모 아카데미쿠스(상)

이 광 주

인제대 사학과 교수



서 독에서 1956년에 행한 한 흥미있는 조사에 관해 살펴 보자.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모두가 같은 연배로서,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지면이 없는, 큰 회사의 사장, 대학교수, 장군, 장관, 공작 그리고 주교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식전에서 그 중의 한 사람을 최상석에 앉힐 경우 당신은 누구를 택할 것입니까” 그 해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대학교수 31%, 주교 27%, 사장 12%, 장관 10%, 공작 6%, 장군 5%. 교수가 수위를 차

### 지성사상의 대학과 교수상

1. 중세의 방랑교사와 그 후예들
2. 교양과 교양인의 세기속의 대학과 아카데미(상, 하)
3. 이데올로기 시대와 학문의 자유
4. 베를린 대학과 호모 아카데미쿠스(상, 하)
5. 다원적 대학과 교수의 천의 얼굴

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순위는 다른 나라 같으면 달리 나타났을 것이다. 독일 국민은 언제나

교수들에 대해 과도한 존경을 바쳐 왔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1968년 2월의 『슈피겔』지는 교수의 권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훨씬 밑바닥에 30만 학생을 지니며 계층적으로 구성된 직위의 피라미트의 정점에 자리잡고, 보조 조교, 조교, 私講師, 상급 조교, 受任 교수, 원외 교수, 학술 평의원, 부국장, 대학 평의원, 관리자, 관장, 주임, 감시원, 강사, 도서관원, 학생 카운셀러, 노무자, 직원에 명령을 내린다.”

모든 '권위'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오늘날 독일의 대학교수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1. 전문학의 태동

'호모 파베르'(공작적 인간)나 '호모 루덴스'(유희적 인간)가 있듯이 '호모 아카데미쿠스'(homo academicus), 즉 '학문적 인간'이 존재한다. 그런데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호모 파베르나 호모 루덴스와는 달리 근대적인 아카데미즘 속에서 태어난 근대적 창조이다.

물론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지적 충동은, 도구를 만지고 놀이를 즐기는 충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원초적인 특성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동서를 가리지 않고 문자가 있는 사회에는 어디건 학식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문자와 학문이 聖俗을 가리지 않고 권위의 상징으로서 秘儀的 의미를 질게 풍겼던 고대나 중세의 전통사회에서, 학문은 학문 이상의 것, 다시 말하여 純粹知와 인식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리

하여 오리엔트 세계나 유럽 중세에서 볼 수 있듯이 학식자란 대개가 성직 신분이거나 우리 유교사회의 사대부 계층 역시 단순한 학식자가 아니었다.

호모 아카데미쿠스는, 성직 신분의 학식자나 우리의 지난날 선비들과는 달리 자기의 고유한 학문 연구의 공간을 지닌다. 그들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특성을 규제하고 잘 말해주는 공통의 터전은 '아카데미'이다.

오늘날 연구 기관 혹은 대학을 뜻하는 아카데미는 그리스의 아테네 근교 아카데미오스를 섬기는 신역에 플라톤이 문을 연 學園 아카데미아에 그 기원을 지닌다.

유럽의 지적 학문적인 전통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사조에서 연유되거나와 전자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의 명칭을 빌린 르네상스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아카데미 운동을, 그리고 후자는 중세 수도원 학교와 주교좌 성당학교 및 그것이 발전하여 성립된 대학을 창출하였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의 플라톤 아카데미나, 17세

기 살롱문화와 절대 왕정이 손을 잡고 낳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로알 소사이어티는 결코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낳지 못하였다. 16,17세기 유럽 학예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하나 귀족적인 살롱문화에 뒷받침되어 이룩된 아카데미는 학예 '애호가들'의 모임일 뿐 결코 순수한 학자들의 학문 연구 기관은 아니었던 것이다. 학문적 인간에 의해 구성된 학문 연구의 터전이 아닌 점에 있어서는 18세기의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신학 중심의 파리 대학을 모범으로 한 중세 유럽 대학의 전통이 대체로 18세기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이어져 만학의 아버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학예학부는 물론 자연과학 전반을 한데 묶었던 의학부에서도 주된 '교본'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도 교수와 학생들에게 엔사이클로피디아적 지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이 신학·법학·의학 및 학예학부(철학부)의 4학부로 나누어졌다고는 하나 학예학부 교수가 의학부나 법학부 교수로 둔갑되고 강의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 전문

학과 '연구'의 개념이 아직도 대학에서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독립된 개별적 과학, 즉 전문학으로서의 학문은 18세기의 소산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1724년 영국왕 조지 1세는 전문적인 외교관 양성을 위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양 대학에 근대사 강좌를 개설하고 그에 덧붙여 여러 외국어 교육을 부과하였다. 세계 최초의 전문학의 출현이다.

그러나 대학의 주요한 기능은 여전히 신학 연구나 성직자 양성 아니면 교양 있는 신사의 육성이요, 그렇지 않으면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새로이 나타난 직업적인 실학 교육이었다. 이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는 그 본질인 '연구 공동체', '학문 공동체'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시민사회의 성립에 대응하여 직업적 전문직을 창출하기 위한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이 고등교육의 주요한 목적으로 부각되면서 전문학으로서의 근대적인 학문이 태동되고,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출현하게 되니 그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독일

프로이센의 근대화의 일환으로서 1810년에 창립된 베를린 대학이었다.

## 2. 철학과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탄생

베를린 대학은 학문 연구를 그 목적으로 내세운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이다. 프로이센의 문교대신으로서 그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다한 훔볼트는 새로이 세워질 대학과 관련하여 1809년 5월 왕에게 올린 각서에서 '대학'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영역의 지식도 이 시설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18세기 독일에는 대학이 36개교 있었다. 그 중 17개교는 카톨릭계였으며 프로테스탄트 계열도 동수였다. 그리고 나머지 2개교만이 신·구교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있었다. 카톨릭대학은 모두가 성직자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어 그만큼 학문 연구와 교수의 자유 따위는 등한시되고 있었다. 신교 계열의 대학도 대체로 종파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한편, 강의는 대체로 학문 연구자라고는 할 수 없는 교

수들에 의해 무계획적이며 무미전조하게 이루어졌다. 18세기, 어느 역사학 교수는 독일사 강의를 학기말에 이르러서야 겨우 칼 대제 시대에도 달하였으며 그의 동료 교수는 12년간의 세계사 강의에서 겨우 9세기까지를 마쳤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교수는 황제 레오폴트, 요셉 1세, 칼 3세에 관해 단 1시간 강의로 얼버무렸다. 이것이 중세 遺制 그대로 신학과 카톨릭 도그마의 보루로서 데카르트 철학을 비롯한 근대사상과 과학을 철저히 적대시한 파리 대학과 귀족적인 엘리트 계층의 교양에 집착한 옥스-브리지의 학풍과는 이질적으로, 괴팅겐 대학과 할레 대학을 통해 학문 연구 터전으로서의 대학 근대화 과정에 참여 있었다는 독일 대학의 실상이었다.

베를린 대학의 지도 이념은 '학문의 자유'이다. 이 학문의 자유는 비단 학문 연구와 교수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학문과 교양의 일치, 학문을 통한 교양의 성취라는 독일 이상주의 철학과 인문주의 문학의 학문관과 인간관을 잘 말해 주며 그것은 또한 독일적 지성의 현실 인식과도 깊이 관련된다.

베를린 대학 창건에 직접 관여한 철학자들은 동시대의 프랑스 ‘필로조프’라고 불리었던 계몽사상가와와는 달리 말의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였다. 훔볼트를 제외한 모두가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그들 솔라이어마허, 셸링, 피히테 등은 대학을 바로 ‘학문 연구’의 센터로서 생각하였다. “(대학은) 학문만이 지배하고 모든 정신이 학문에만 몰두하는 곳”이다. 모든 지식이 대학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왕에게 건의한 훔볼트는 ‘아직 전혀 규명되지 않은 학문’의 연구를 또한 강조하였다. 敎父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교본으로 쓰면서 그에 주석이나 달았던 지난날의 학풍이 극복되고 대학에 이제 ‘연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규명하는, 그리고 그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실현의 기쁨을 맛보는 학자적 인간, 즉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탄생될 것이다.

그런데 베를린 대학 창건의 철학자들에게 학문이란 바로 철학을 의미하였다. 솔라이어마허에 의하면 “철학부는 대학에서 제1의 지위를 차지하

는 모든 학부의 여왕이다.” 이러한 철학 지상주의는 19세기를 통해 학계뿐만 아니라 교양있는 독일 시민계층 모두를 사로잡은 집단적 정서였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철학 제1주의는 단순히 제학문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제학문과 그리고 현실세계의 이념화, 즉 철학적인 인식을 의미하였다. “철학은 이념 속에서만 살고 개개의 현실적 사물을 취급하는 것은 물리학, 천문학 등에 맡긴다.”고 낭만주의적인 철학자 셸링은 말하였거니와 베를린 대학 창립자들의 철학 중심의 대학관-학문관은 그 밑바닥에 반사회적 반시민적인 경향이 짙다.

그러한 경향은 종교개혁 이래 독일 지식사회에 팽배한 지적 풍토로서 괴테와 더불어 독일 고전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쉴러는 1789년 그의 예나 대학 교수 취임 연설에서 ‘빵을 위한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와 ‘언제나 전체의 중심에 있는’ ‘철학적 두뇌의 사람’을 구별하였다. 전자에 대한 쉴러의 경멸 섞인 언설은 독일 철학의 대부인 칸트에 의해 더욱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표현되었다.

칸트에 의하면 실용적이며 직업적인 목사나 법률가, 의사를 만들어내는 신학부·법학부·의학부와는 달리 ‘학문적 관심에만 몰두하는’ 철학부는 ‘학문적 관심에 의해, 즉 진리에 대한 관심에 의해 행동하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철학부는 단지 有用할 뿐인 세 학부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하였다.

칸트와 그의 철학의 계승자들이 그 이념을 설정한 베를린 대학에 의해 바야흐로 철학의 세기가 열렸다. 그리하여 그것은 철학부 교수 수의 비율에도 반영되었다. 이미 18세기말 당시 독일 39개 대학의 전체 교수 791명 중 274명(35%)이 철학부 소속이었다. 대학사를 돌이켜 볼 때,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어느 특정한 학문 내지 학부가 유별나게 우위를 차지하는 국면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즉,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신학과 신학부가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여 다른 제학문은 신학의 시녀의 지위를 감수하여야 하였으며, 16세기 이후 절대주의 왕권하의 앙상-레짐 체

제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유능한 관료를 창출하기 위한 법학부의 우위가 나타났다. 논의하는 公衆을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태동과 더불어 철학의 시대가 열리고, 다원적이며 진보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대학이 갖가지 전문학 연구의 터전이 됨은 역사의 필연이었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 대학의 경우, 이상주의적이며 관념적인 철학 지상주의는 이념화되고 내면화된 학문(Wissenschaft)과 그 분신인 ‘호모 아카데미쿠스’를 창출한 점에서 특수 독일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베를린 대학의 창건으로 돌아가 보자.

그 창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초대 총장을 역임하게 되는 피히테, 그에게도 대학은 철학 중심의 학문의 터전이어야 함은 물론이었다. 심지어 그는 범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출범하게 된 새로운 대학이 철학만이 교수되고 연구되는 대학이기를 원하였다.

피히테의 대학 이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각별히 중요한 것은 그의 學者像이다. “학자에게 학문은 어떤 목적을 위

한 수단이 아니라 학문 자체가 그의 목적이어야 한다. …… 학자는 언제나 그의 생활의 근원을 이념에 두고, 오직 이념에서부터 현실을 보고 ……”. 학자란, 피히테에 의하면 시민적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과는 다른, 고유의 생활양식을 지닌 존재이다.

피히테는 그의 유명한 『독일 국민에 고함』에서도 국민의 일반 교육과 구별된 학자 지망자의 특수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학문에 뜻을 둔 자는 어릴 때부터 ‘빵을 위한’ 직업이나 생활로부터의 해방, ‘생계에 대한 고려로부터의’ 해방, 바꾸어 말하여 학문이라는 ‘자기 목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피히테는 학생과 더불어 교수들에게, 그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복을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교수와 함께 학생은 시민사회와는 다른 공동체를 구성하며 그들 자신 ‘미래의 존재 방식’을 구현하는 특정한 질서에 따른다. “학문적 전문교육을 받은 신분 이상으로 높은 신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일반 시민을 지도함은 정신적·윤리적·사회적 책무이다. 이렇듯 피히테

에 있어 학문은 사람을 選民과 일반 사람과를 차별짓는 징표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반시민적 선민의식과 결부하여 피히테는 대학의 소재지로서 작은 도시를 손꼽았다. 왜냐하면 시민 대중이 무리를 지어 혼탁한 큰 도시와는 달리 “소도시에서는 극히 쉽게 학문 정신, 학문적 분위기가 학생들 사이에 널리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의 대학은 대개 고딕풍의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그들이 즐겨 말하는 ‘학자 공화국’을 꾸밀 수 있었다.

학문의 본질을 순수 인식 속에서 찾고 대학을 비사회적 내지 반사회적인 학문을 하는 자의 공동체로 인식한 피히테는 학문과 학자의 자유를 “자기의 목적에 모든 생활을 집중하는 것, 그러므로 완전히 자기의 생활을 다른 모든 생활 양식에서 유리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고독의 자유에서 찾았다. 독일 교수상의 풍모를 특징짓는 학문하는 자의 고독과 자유의 문제는 훔볼트에 있어 더욱 베를린 대학의 창건 정신을 떠받드는 본질로서 강조된다.

“순수 학문에 대한 인식에는……자유와 그에 도움이 되는 고독이 필요하다.” 훔볼트는 학자, 즉 대학인의 ‘고독’과 관련하여 우선 ‘學事 업무’로부터의 대학인의 철저한 해방을 강조하였다. 훔볼트에 의하면 대학에서 교수는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강의 자체도 교수를 위해 행하여져야 한다.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전적으로 홀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가 존재하여야 하며, 학문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작은 공동체’ 속에서……자기의 학문을 위해 사는 것이다.”

어떠한 업무로부터도 해방된 單獨者의 보람과 자유를 누리는 훔볼트의 교수=학자像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식인의 선조의 한 유형인 유럽 중세 궁정의 ‘광대’를, 그리고 유교 전통 사회의 隱者들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사회적 질서나 윤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일이나 이해로부터 해방되어 ‘놀이’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든 업무로부터 해방된 학문하는 자의 ‘고독’, 그리고 그 고독과 표리를 이루는 ‘학문의 자유’! 훔볼

트에 의해 학자의 특권으로서 주장된 ‘고독과 자유’는, 철학의 이념화와 더불어 학문의 聖化가 전제되었으니 훔볼트의 ‘학문을 통한 교양’(Bildung durch Wissenschaft)이라는 명제가 다시 우리의 관심을 이끈다.

훔볼트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적인 자기 형성을 의미하는) 교양은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학문 연구 및 학문을 지적·도덕적 교양을 위해……헌신하고자 마음먹을 때 성취된다.”

‘순수 인식’을 인간의 자기 형성을 의미하는 교양의 최선의 길잡이로서,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적 자기 실현이 ‘순수 학문’에 대한 헌신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으로 확신한 훔볼트에게 대학이란 학문을 통한 인간 형성, 즉 교양을 위한 교수와 학생의 공동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였다. 이렇듯 ‘학문을 통한 교양’의 명제에 의해 학문과 교양은 꼭 같이 인간적 목표요 목적으로 이해되었으니, ‘학문’이 단순한 ‘지식’과 구별되고 ‘학문적 인간’, 즉 ‘호모 아카데미쿠스’가 단순한 직업적 전문가나 지식인과 구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역사가 칸토로비치는 “가운을 입는 자격이 주어지는 직업이 세 가지 있다. 재판관, 성직자 및 학자이다. 가운을 입고 있다 함은, 정신의 성숙과 판단의 자율성, 자신의 양심과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나타낸다.

가운은 이들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되는 직업의 정신의 독립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행동을 강요받거나, 압력에 굴해서는 가장 안 되는 직업이다.

“……재판관은 재판소 그 자체이다. 성직자와 신자는 교회 그 자체이며 그리고 교수와 학생은 대학 그 자체이다……그들은 이들 기관 그 자체로서 그러므로……그 기관에 대해 또한 그 기관 속에서 특권을 지닌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학문과 학자의 이념성이라는 그의 신념에 뒷받침되어 당시 캘리포니아 대학에 재직중이던 칸토로비치는 1949년 6월 14일 <총성서약>의 강요를 앞장서서 거부하였다. 그런데 칸토로비치는 나치스로 인하여 미국에 망명한 독일 태생의, 정통적인 독일의 정신 풍토 속에서 자란 독일 대학의 교수 출신이었다.

### 3. 교수상의 영광과 허상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프로이센의 문교장관이요 대학 개혁론자였던 베커는 대학을 ‘순수 학문의 聖杯의 城’으로 그리고 교수를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사’로 칭하며 이상화하였다. 마치 고대 오리엔트 문명권에서의 사제와도 相似된 교수, 즉 ‘호모 아카데미쿠스’에 대한 독일 국민의 외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시인 하이네는 “독일에서는 혁명의 원리가 보다 더 민족적 종교적 혹은 독일적인 철학으로부터 연역된다. 이 철학의 위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정치적 종교적으로 분열된 18세기의 독일에서 국민적 연대감을 창출해 내고 그럼으로써 민족 통일의 길을 연 것은 다름아닌 철학적 독일이요, 그 세례를 받으며 자라난 교양시민계층이었다.

독일에서 교수들의 영광은 베를린 대학 창건 직후 발발

한, 나폴레옹에 대한 범독일적 저항 투쟁이었던 解放戰爭(1813)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비스마르크에 의한 제국 통일의 이념도 칸트 철학과 더불어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트라이치케의 강의실에서 배태되었다. 19세기 말에는 대학 생활에 관한 소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서 교수는 무한한 지성과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로 그려졌다. 파울 클라바인의 작품 『예나에서, 어느 학생의 일』의 주인공은 노교수의 강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노학자가 정감에 넘쳐 영감을 받은 듯 빛나는 눈동자로 이야기할 때 그 존엄한 머리는 후광처럼 침묵에서 내리 짚이는 따뜻한 태양 빛에 밝게 빛났다. 성스럽고 순수한 감동이 헬무트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 순간 학문의 성전에 있는 듯이 느끼고 행복한 금지와 더불어 언젠가 이 신전에 사제로서 자기가 불리워지리라는 생각에 정신을 빼앗겼다.”

19세기 미국의 대학교수들은 학문의 선진국인 독일의 대학에 앞을 다투어 유학하고 ‘연구’ 중심의 그 학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거니와 그 한

사람인 클라크 대학의 총장을 지낸 스탠레이 홀은 “연구란 인간에 있어 최고의 사명이다. 그것은 종교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종교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종교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종교와 전혀 다르다.”라고 언명하면서 그가 체험한 독일 대학의 교수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 속에는 마치 神을 증명하는 영예가 자기에게 부여됨을 일관하여 기대하였듯이 다른 모든 저작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발견만을 강의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도 있었다.”

민족 통일과 국민 국가의 창출에 이념적인 기여를 다한 이외에도 1848년 혁명 전후의 대학과 교수는 독일 자유주의의 주장자로서 큰 존경을 받았다. 특히 낡은 헌법의 부활을 기도한 국왕에 대한 충성 선서를 거부하여 대학으로부터 추방 당한 이른바 ‘피팅겐 7교수 사건’(1837)은 대학교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10년 뒤 통일 독일의 헌법 제정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전체의석 830개 중 1백 석이 넘는 의석을 대학교수들이 차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독일 교수들은 결코 상아탑 속의 단순한 ‘호모 아카데미쿠스’에 머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떠하였던가. 흑·적·황금의 지금의 독일 3색 국기는 원래 독일 학생조합의 깃발이다. 독일에 대한 나폴레옹의 침공은 많은 領邦으로 분열된 독일에 민족주의를 불러 일으켜, 특히 학생들은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투쟁(해방전쟁) 속에서 일어난 일찍이 없었던 민족적 일체성과 연대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그 기세를 몰아 1817년 전쟁터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학생조합을 결성, 민족의 통일과 자유를 위한 전위적 사명을 다짐하였다.

이후 학생과 대학은 통일과 자유를 위한 민족적 해방의 전위대요 보루가 되고 그들의 3색 깃발은 트라이치케(그는 베를린 대학의 강단에서 예언자적 풍모로써 학생들을 통일전선으로 영도하였다.)가 표현하였듯이 “반세기 동안 시종 일관하여 국민의 동경의 깃발이며 것처럼 많은 희망 그리고 것처럼 많은 눈물을 독일에 가져오게 한 3색기”가 되었다.

#### 4. ‘호모 아카데미쿠스’ 칸트

1848년 혁명 이후 교수들

은 자유주의자였으며 1871년 국가 통일에 있어 대학은 그 이념의 鍊金場이었다. 그러나 그뒤 독일 교수들은 ‘세상을 멀리한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독일 국민의 교수들에 대한 경애의 조건이기도 하였다.

가령 그가 우산을 잊었다 하더라도/사람들은 속삭인다./ ‘그는 전문적인 것은 알고 있다.’/ 조용한, 때로는 깊은 강의의 흐름/나이 많은 교수.

베를린 대학 교수 헤겔은 ‘현실적인 것은 모두 이성적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명제의 증명에 필경 인도되는 그 유혹적인 체계의 힘에 의해 그의 관념론은 정신과학의 모든 영역에 군림하고 지적 교양계층을 사로잡았다. 한편, 헤겔 자신도 베를린 대학의 황제처럼 군림하여 그의 신봉자나 제자가 아니면 대학 강좌를 얻을 수 없었다. 인식과 진리의 궁극의 언어를 마술사처럼 토해내는 이 철학자가 어느 살롱에서 포커 놀이를 즐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철학자답지 않은’ 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였다고 한다. 어느덧 독일 사람들은 철학자 像을 일상적인 생활과 동떨어

진 오직 책상머리에서 사색에만 몰두하는 ‘호모 아카데미쿠스’로서 만들어낸 것이다.

칸트의 일상적 모습을 통해 전형적인 독일의 호모 아카데미쿠스 像을 그려보자.

세계 지성사상 비할 바 없는 철학의 새기를 연 칸트는 엄격하고 규칙적인 일상 생활을 지켜 여름, 겨울 다름없이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옷을 갈아입은 뒤 홍차 한 잔을 마시고 하루 한 번만인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여름에는 7시 겨울이면 8시에 강의가 시작되고(강의는 그의 집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행하여졌다. 교수가 자택에서도 강의를 행하는 파리 대학 이래의 관행은 칸트의 시대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이다.) 대개 10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뒤 오전 시간은 전적으로 독서에 할당되었다. 오후 1시의 점심 때면 그는 언제나 특정한 한 호텔에서 식사하였다. 어쩌다 집에서 친지를 초대하여 오찬을 나눌 때면 합석자는 모두가 남성이었다. 이 철학자는 결코 여인을 싫어하지는 않았으나 독신인 그의 집에 여성이 출입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회식의 동석자는 3~4인을 넘



지 않았다. 그의 집에는 6인분의 식기밖에 없었다. 점심 식사 뒤에 칸트는 '유명한' 산책을 하였다. 동반자가 있을 때도 있었으나 대개는 혼자였다. 그는 거닐면서 사색하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산책 코스는 대개 동일하고 규칙적이어서 그의 행보를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었다 함은 그 진위는 어떻든 이 고명한 철학자의 일상을 잘 전해주는 에피소드라 할 것이다.

칸트는 산책에서 돌아오면 겨울, 여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난로 앞에 앉아서 연구와 사색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촛불 아래서 10시까지 독서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칸트 시대의 독일은 '누구나 철학자'였던 세기인 동시에 음악의 황금기이기도 하였다. 독일인이란 철학자이며 음악가라는 말도 이 시대부터 일컬어진 이야기이다. 그리고 케니히스베르크는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의미한 감각의 즐거움'을 경계한 칸트는 문학생들에게 음

악과 거리를 둘 것을 충고하여 "음악에 지나치게 매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소중한 학문을 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화초에 대한 취미도 없었으며, 철학자로서는 주로 동시대인인 흄과 루소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의 규칙적 산책이 때때로 그가 애독한 『에밀』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나 이 철학자가 자기의 서재에 걸어 놓은 유일한 그림은 루소의 초상화였다. 그는 46세에 이르러서야 교수직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 독일 지식사회의 한 중심지였던 예나 대학의 초빙을, 그리고 또 당시 가장 유명하였던 할레 대학의 초빙도 거절하였다. 그 이유인즉 고향인 케니히스베르크를 떠나기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칸트는 80 평생을 통해 그가 태어난 케니히스베르크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저작 『실천이성비판』의 유명

한 구절 '나의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 새겨졌다.

그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 국민적 외경의 대상이 되어 온 독일 교수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민족 통일에 이념적인 기여를 다하고 독일 자유주의의 주동적 그룹을 형성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은 필경 좌절된 자유주의자였고 실패한 내셔널리스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영광은 바로 그들이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점에, 그리고 그들의 국민이 그 '학문적 인간' 속에서 '나의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의 虛像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실에 연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

이광주/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연구하였으며 충남대와 전주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식인과 권력』, 『유럽 사회 풍속산책』 등이 있다.